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7,12,24,29-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독서] 로마 8,31-39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음] 루카 9,23-26

성가	8시 미사	입당 283	봉헌 주님 만나이다	성체 512 169	파견 286
	11시 미사	입당 283	봉헌 주님 만나이다	성체 512 169	파견 28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2일)		연중 제 26주일(9월 29일)		연중 제 27주일(10월 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구미카엘(창희)	이바로오(명국)	이베드로(기만)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김글라라(순희)	김테레사(승희)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순교정신을 본받는다는 것

9월은 순교성월이고, 오늘은 특히 최초의 방인사제가셨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오늘에 되살려 순교자들의 고귀한 정신과 삶을 본받아 살고자 결심을 다지는 대축일입니다. 여러분은 순교성월을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을 세우셨으며, 어떻게 실천해 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순교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웅적인 순교 이야기를 듣다보면 가슴 찡한 감동과 눈물겨운 사연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오늘 제2독서에서 봉독된 말씀처럼 “**환난과 역경과 박해 그리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심지어 위험이나 칼**”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죽음이 벌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지혜 3,4) 있었으며 영웅적이고 장렬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분들의 거룩한 순교에 대해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슴 깊이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들은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순교에 대해 깊이 실감하지 못하고 단지 피상적인 감상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예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순교 정신을 제대로 본받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9,23)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교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숨을 내놓는 순교와 현실적인 희생은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교가 없어진 마당에 타인을 위한 희생, 봉사,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순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처한 불의한 현실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아파하는 이들과 같이 아파하고, 불의한 현실을 함께 변화시켜 나아가려고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이지만 우리들의 작은 희생과 절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선 자신부터 똑바로 살고 남들도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신앙생활은 순교의 삶이다

예전 종로거리에는 ‘단성사’ 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억의 거리는 많이 변해 옛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종로3가 소방서와 파출소 앞에 ‘좌포도청터’ 라는 표석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교구 6대 교구장 리델 주교님께서 옥중 수기를 쓰신 곳이 바로 ‘좌포도청터’ 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죄인들을 붙잡아 두었던 곳인데, 천주교 박해시기에 리델 주교님께서도 ‘죄인’ 으로 잡혀 좌포도청에 수감되었습니다.

1878년 1월 28일, 리델 주교님은 5개월 동안 옥중에 갇혔으나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의 교섭과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6월 5일 옥에서 풀려나, 7월 12일 만주로 추방되었습니다. 주교님의 회고록을 보면, 130여 년 전 조선 감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당시 감옥을 ‘지상에 존재하는 지옥의 상(像)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것’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위와 추위,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 초라한 식사로 인해 건강을 잃는 수감자도 많았습니다.

리델 주교님은 조선 입국을 준비하며 그의 형수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조만간 그 십자가를 어깨 위로 짊어지려 합니다. 그 십자가를 늘 제 가슴속 깊이 새겨 간직하며, 조선 백성들 한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단단히 심어 그 백성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과 선배 신앙인들이 혹독한 감옥생활을 지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평온함 역시 많은 이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두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물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어쩌면 순교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순교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상황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신학교 교수 신부님께서 순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교할 상황이 닥치면 누가 순교를 할지 배교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순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미약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순교도 하느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이 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어제의 환상이 아닌
오늘의 아픔의 무게
꽃처럼 고운 꿈이 아닌
피투성이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남들을 따라가게 하소서

글_이해인 수녀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 1

3년 전 한창 고통스러웠을 때 저는 성모병원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꺼내 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남긴 그리스도 최후의 유언(遺言)입니다.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저는 주님의 육성을 들은 듯 하여 순간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힘이 솟구쳤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란 감탄사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보라! 보아라! 인호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이 예수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맹세하지 않느냐. 두고 보아라. 내 말에는 틀림이 없다.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말은 일 점 일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 5,18 참조)

오래전에 이런 우화를 읽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사람이 죽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자신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걸어난 발자국을 발견한 그 사람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가요.”
“내 발자국이란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아려보니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는 투덜거렸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제가 불행할 때는 도망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뿐이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저와 함께 나란히 걷고 계신 것일까요. 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주님은 제 옆에서 동반자가 되어 우화의 내용처럼 때로는 함께 걷고, 때로는 업으며 동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던’ (루카24,15 참조) 주님처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풍경은 너무나 생생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한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누군지 못 알아본 두 제자에게 일일이 성서를 설명을 해주시고 뜨겁게 감동을 주셨으면서도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루카 24,28) 보였다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더 멀리 가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늦은 시간에, 저녁밥도 못 먹은, 노숙자처럼. 만약 제자들이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온종일 함께 걷던 그 사람이 주님인지 전혀 몰랐던 두 제자가 마침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순간 엠마오고, 빵이고, 밤길이고 다 때려치우고 뜨거운 감동을 안고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란 절창의 시를 노래했습니다.

“이 숲의 주인을 나는 알 것 같다 / 그러나 그 집은 마을에 있어 / 내가 멈춰 서서 자기 숲에 / 쌓이는 눈을 바라봄을 그는 모르리라 / ..(중략) ... /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 그러나 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이 있다 / 잠들기 전에 가야할 먼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잠들기 전에 서둘러 가야할 먼 길을 떠나려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직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루카 24,16) 눈뜬장님인 저를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최인호베드로 | 작가

머무름

자연출산조절을 위한 센터들을 장려하여
책임 있는 부모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선택을 진실한 자기 증여라는
기준에 따라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88항

가톨릭전례

사도신경의 핵심 =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생겨났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교리교육도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사도신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고백**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외면하니,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써, 하느님 사랑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신경의 골자입니다.

「교회는 신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와, 만물에 대한 “그분의 호의에 따른 당신 뜻의 신비” (에페 #1:9)를 고백한다. 성부께서는 세상의 구원과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성자와 성령을 주심으로써 “당신 뜻의 신비” 를 실현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66항).」

가톨릭교회교리의 제2편은 “전례” 입니다. 전례는 7성사, 준성사, 성무일도, 각종 신심 전례 행사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구원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기념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체험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구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정도의 기억만 남는다면, 예수님의 사건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 사건이

지속되고, 새롭게 체험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7성사를 제정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의 전례 행위들을 원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1고린 #11:26) 당신 교회의 전례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드러내고, 현존하게 하고, 전해 주신다. 교회 시대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 안에, 교회와 더불어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계시고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1076항).」

베네딕씨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좋게 말하다” 입니다. 이 말이 하느님 편에서 사용되면 강복(복을 내려주심)이라고 번역되고, 인간 편에서 사용되면 축복(복을 칭함)이라고 번역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십니다. 인간에게 좋은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를 사랑한다” 고 고백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으시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건강, 약간의 재물을 복으로 내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느님께 좋은 말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고백 역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청하기에 앞서서,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례 안에서 축복과 강복이 만납니다.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구원 사건이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강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강복과 인간의 축복이 서로 만나는 전례는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전례를 통해서 그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힘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1	275	-	354
헌 금	\$674	\$1,379	-	\$2,053

< 교무금 > \$2,610

권영현(9-10) 이영길(5-9) 윤성일(5-9)
이흥구(9-10) 한재구(7-9) 전덕천(9-10)
강신호(7-8) 이순열(9-10)

< 성소후원금 >

윤성일(5-9)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조상희 \$100 박영실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0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9월 22일 일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생	백미카엘/김로사	전례성가대
	생	고혜숙 생일	황안나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신경호/신소라	신엘리사벳
9월 24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유주호	가족
9월 25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유주호	가족
	생	양마리아(석순)	박헬레나
9월 26일 목	연	유주호	가족
9월 27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유주호	가족
	생	박리나(현주)	박헬레나
9월 28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 오늘 간식은 트락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오클랜드 성 김대건 천주교회 장학금 수여식

일시 : 9월 22일(오늘) 교중미사 중  
대학생 부문 수혜자 : 심혜란 에스텔, 이가은 모니카  
고등학생 부문 수혜자 : 이승혜 마리아,  
임호영 대건안드레아, 정송이 비비안나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평협회의 : 9월 2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장학위원회 모임 : 9월 22일(오늘) 9시15분 1회의실
- \* 사목회의 : 9월 29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울뜨레야 모임

9월 26일(목) 저녁 미사 후 106호실

◆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례회

9월 28일(토) 오후 12시 반 106호실

◆ 빈첸시오 130차 홀리스 저녁봉사

일시 : 매주 넷째주 목요일(9월 26일) 오후 4시  
\* 본당 빈첸시오회에서는 13년 동안 1,3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가 16,000명에 달하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봉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130회 봉사를 기념해 주십시오.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트라이밸리성당 성전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9월 28일(토) 12시 집결(1시 샷건 티오프)  
장소 : San Ramon Golf Club ·  
참가비 : 남 \$90, 여 \$80, 부부 \$150  
문의 및 신청 : 이상덕 프란치스코 925-200-3187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9월 구역모임 콜로세서 1-2장

|       |             |                           |
|-------|-------------|---------------------------|
| 1 구역  | 9월22일(일) 6시 | 최명숙 매들린 댁                 |
| 2 구역  | 9월29일(일)6시반 | 정일양 안드레아 댁                |
| 5 구역  | 9월29일(일)    | 야외소풍 겸 구역회                |
| 7-1구역 | 9월28일(토) 2시 | 파운더스홀                     |
| 7-2구역 | 9월28일(토) 6시 | 채성일 토마스 댁                 |
| 8-1구역 | 9월29일(일) 5시 | 팽현팔 하비에르 댁                |
| 8-2구역 | 9월22일(일) 6시 | UC Village Cross Rd. Room |
| 10 구역 | 9월22일(일) 5시 | 이건용 요셉 댁                  |

◆ 요아킴/안나회 모임 - 조마오로 수녀님 특강

- 일시 : 10월 6일(점심식사 후) : 누구나 참석 가능  
\* 1강의 :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가엾은 마음이,  
(루카15,20)  
\* 2강의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요한15, 12)

◆ 19차 성령대회 강의 CD 예약 및 판매(CD 3장 \$15)

예약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탁구동호회 모임이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음주 29일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레이더스 흥경기가 있습니다. 880보다는 580을 이용하시는 것이 미사시간에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9월 Hair Cut 봉사는 둘째 주, 넷째 주입니다.

주일학교 소식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반

한국학교 소식

- 10월 5일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